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1
강원도민일보	22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	1
江原日報	온라인	춘천 후평2동 주민자치회, 강원사대부고 학생자치회와 마...	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개점	3
강원도민일보	06면	우수 인재 발굴-취업 기회 확대 '원원'	3
뉴스타운		홍천소방서·홍천의용소방대聯, 제3회 의소대의 날 기념식 ...	4
江原日報	21면	[동정] 이한영 도의원(태백)	5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고재창(원쪽) 태백시의장·이한영(태백)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01면	도내 432명으로 증원 의사 잔류 방안 숙제	6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의대 졸업생 10명 중 7명 탈강원...유출방지 급선무	7
강원도민일보	04면	정부 의대증원 발표날 주인 잃은 가운	7
강원도민일보	04면	반대 "의료붕괴 정책 강행" 찬성 "인력확보 기대"	8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이통장 "농촌현실 외면...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오...	9
강원도민일보	05면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 10곳 확대...문제는 '돈'	9
강원도민일보	08면	강원첨단산업 '새 지도' 기회발전특구 속도전	10
江原日報	01면	올 2월 강원 수출 '3억430만 달러' 역대 최고액 경신	10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WT본부 중투심사 발목 '숨고르기'	11
강원도민일보	12면	'봄이 성큼'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내주 개막	11
강원도민일보	13면	횡성한우축제 장소 섬강둔치 낙점	12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 장릉 도깨비마을 나와라 '뚝딱'	12
江原日報	04면	'뚝'... 산불 걱정 한시름 덜어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대 증원, 의료 격차 해소 계기로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혼인건수 최저치 정책 변화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사들 집단행동, 여기서 멈춰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늘어가는 MZ 조폭,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17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인물 21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가 20일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열려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건의한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인물 22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심영곤 강원특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정기회를 열고 '동해선철도 고속화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4년 03월 20일 (수)

정치

江原日報

춘천 후평2동 주민자치회, 강원사대부고 학생 자치회와 마을 의제 고민

20일 2025년도 주민주도 마을사업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



춘천시 후평2동 주민자치회(회장:엄상필)가 20일 강원사대부고를 찾아 학생자치회(회장:김민서) 35명과 ‘2025년도 주민주도 마을사업’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졌다.

춘천시 후평2동 주민자치회가 20일 강원사대부고를 찾아 학생자치회와 ‘주민주도 마을사업’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역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또 회의에서 얻어진 학생자치회 의견들이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명숙 후평2동장,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진 도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잘 활용해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강원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춘천시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 곳곳의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숙의된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위해 매년 7,000만원을 편성, 마을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0일 (수)

지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개점

초등생 돌봄·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인 대관령점 개점식이 19일 오후 대관령면 황계리 현지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점한 대관령점은 폐원한 유치원을 활용해 조성했고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원터700(대표 임의규)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에 들어갔다. 대관령점은 지역 초등학생 방과 후 상시 및 일시돌봄과 급·간식 지원, 학습·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송댄스, 뮤지컬, 겨울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개점으로 군내에는 평창읍과 봉평·대화·진부점까지 모두 5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돼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역 아동들의 돌봄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게 됐다. 심재국 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현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경제 06면

우수 인재 발굴-취업 기회 확대 '원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추천 설명회

직무 설명·취업 프로그램 만족

“지역 출신 이점, 좋은 결과 기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춘천에서 전국 첫 번째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려 취준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일 정부는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춘천을 시작으로 합동채용설명회, ‘202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복환 국

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허영국회의원, 박찬홍도의원,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전경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전국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했다.

또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도내 소재 13개 우수 민간 기업도 함께해 지역인재들을 위한 폭

넓은 채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도내 기관·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장으로 마련됐다.

김태한 지오텍소프트 경영지원팀 과장은 “지역 대학에서 실습생을 뽑고 그 과정 속에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며 “지역의 유능한 인재도 받을 수 있어 많이 채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참여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특히 윤종혁 강사의 ‘공기업 취업 내비게이션’, 황인 강사의 ‘취업 100% 성공하는 법’ 등의 특강과 ‘취업 선배와 함께하는 잡(JOB)담(TALK)’

등을 진행해 취업 현장의 이야기를 제공했다.

강원대 휴학생 김지은(24)씨는 “강원대에 나온 이점을 살려 강원 인재 선발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에 와보니 지역인재 선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고, 직접적인 직무에 대한 설명을 받아 만족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광열 도경제부지사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52.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며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만큼 우수했기에 나온 수치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도내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이정호

뉴스타운

NOWSTOWN

2024년 03월 21일 (목)

지역

홍천소방서·홍천의용소방대聯, 제3회 의소대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와 홍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조덕연·박홍숙)는 지난 19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며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홍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는 신원재 홍천군수, 이영욱·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박영록 홍천군의회장과 의원,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주제로 조덕연·박홍숙 홍천의소대 연합회장과 24개 의용소방대 및 역대회장과 가족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날 축하공연으로는 홍천출신 승민정 가수가 초대되어 고향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의용소방가에 전국 최초로 홍천여성의용소방대가 자체 안무를 제작 이슈를 끈 댄스와 홍천 24개대의 활동영상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물론 수많은 사회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는 의소대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소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고 홍천의소대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날 홍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28명의 유공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박홍숙(홍천여성의용소방대장) ■소방청장 표창 △박경준(영귀미 남성의용소방대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지성훈(화촌남성의소대 지도부장) △이은아(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이두현(좌운전담의소대 총무부장) △김미라(내면여소대 지도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윤용수(내촌남의소대 부대장) △신서균(남면남소대 현장관리반장) ■홍천군수 표창 △박순자(화촌여소대원) △남궁현(두촌남소대원) △용명주(내촌여소대 서무반장) △김주희(영귀미여소대원) △권혁재(서면남소대 보급반장) △김남한(서석남소대원) ■홍천군의회 의장 표창 △박미영(북방여소대원) △홍범준(모곡수난전문소대원) △김태욱(내면남소대 총무부장) ■홍천소방서장 표창 △김성제(홍천남소대원) △이계동(두촌여소대 대응반장) △고미순(서석여소대원) △박수원(내촌의소대 물결지역대 대응반장) △이성희(남면의소대 시동지역대 구조구급반장) △이현숙(서면여소대 방호부장) △양훈광(북방남소대지도부장) ■연합회장 감사장 △허남홍(홍천남소대 총무부장 △박선미(홍천여소대원) △손영복(서석여소대원) △김두영(내면남소대원)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인물동정 21면

◇이한영도의원(태백)은 21일



오전 11시 태백
소방서 대회의실
에서 열리는 제3
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인물동정 12면



고재창(왼쪽) 태백시
의장·이한영 (태백)
도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태백소방서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의
날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인물동정 16면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21일
오전 10시
속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리
는 속초농협 양봉작목
반 교육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1면

2025학년도 강원도내 의대 학생정원 배정 결과

	현원	증원규모	2025학년도 정원
강 원 대	49명	83명	132명
연세대 원주의대	93명	7명	100명
한 립 대	76명	24명	100명
가톨릭관동대	49명	51명	100명



도내 432명으로 증원 의사 잔류 방안 숙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



정부가 20일 강원도내 4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267명에서 165명 늘린 432명으로 증원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결과를 발표했다. 18년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배출된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남게 해야 할 대책은 아직 없어, 과제도 산적하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이, 경기·인천지역에 361명이 배정됐다.

도내 의대 4곳 정원은 165명 늘어난 게 됐다. 정원이 49명인 강원대가 132명으로 늘었고 한림대(76명)와 가톨릭관동대(49명), 연세대 원주

2000명 중 비수도권 1639명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과제 산적

의대(93명)가 각각 100명으로 확대됐다. 도내 의대 정원 규모는 모두 432명이 된다. 현재 정원은 267명이다.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번 증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정원은 5058명이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A씨는 “주변 선배나 동기들 대부분 지역에서 근무할 생각은 없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지역에서는 급여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남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김정호

▶ 관련기사 4면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4면

강원도민일보

도내 의대 졸업생 10명 중 7명 탈강원...유출방지 급선무

의대증원 비수도권 80% 배정

강원대 83명, 충북대 절반 수준
강원 졸업생 타권역 이탈률 1위
도내 의료기관 업무개선 우선
정부 "4대 의료개혁 지원 강화"



정부가 의대 증원 증원 분 2000명 중 80%를 지역에 배치,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의사들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증원 규모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지역 간 증원 격차 심화

정부는 이번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전체 증원 인원 2000명 중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을 배정했으며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I 지역별 의대 졸업자 및 취업지 (2017~2021년)

지역	분석대상자	군무지역별 취업자 및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강원	1003명	636명(63.4%) 367명(36.6%)
서울	2461명	2193명(89.1%) 268명(10.9%)
경기	186명	169명(90.9%) 17명(9.1%)
전국	8501명	4901명(57.7%) 3600명(42.3%)

II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에서 인턴 근무하는 비율 (2014~2023년)

지역	의대 졸업생	타 권역 인턴 근무인원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
강원	2501명	1842명(73.7%)	25.9%
수도권	1만822명	279명(2.6%)	156.3%
전국	3만230명	1만259명(33.9%)	103.3%



현장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교수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학생들에게 무작정 사명감만 가지고 지역에 남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강화하겠다"

정부는 의대 증원 뿐 아니라 4대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토록 해 중증·응급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고,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 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로, 의료계가 개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틀짜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호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가장 크게 정원이 늘어난 충북대 (151명)와 비교하면 강원대 증원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졸업생 유출 대응 마련 시급

도내 의대생, 인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2014~2023년) 사이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이 적은 지역일수록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졸업생 2501명 중 1842명이 타 권역으로 이탈, 이탈률 73.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이탈률이 높았다. 타 권역 이탈률이 가장 낮았던 수도권의 경우 1만822명 중 279명 (2.6%)만이 졸업한 지역을 벗어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전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5.9%가 서울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501명의 의대 졸업생 중 4901명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강원도의 경우 1003명 중 636명 (63.4%)이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근본적인 의료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4면



정부 의대증원 발표날 주된 잃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한 20일 도내 한 의과대학 복도에 의사 가운데 의학과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다. 도내 대학별로 내년에 배정된 정원을 살펴보면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이다.

유희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4면

반대 “의료붕괴 정책 강행” 찬성 “인력확보 기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등 격화
환자 “수술지연 해소”...반응 엇갈려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대학별 결과를 발표하자 의협과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환자와 보호자, 지역 의료원에서는 벌써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날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면서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모는 정부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 담화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성명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의지를 굽히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대학교수들까지 사직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사직 움직임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은 최근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기봉 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너무 당

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평의회도 지난 18일 병원 외래센터에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전체교수 75.3%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환자 및 보호자들과 지역 의료원에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수 증가를 기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90대 어머니의 뇌종양 수술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전공의 사태로 인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강원대병원까지 찾아온 김모(65)씨는 이번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씨는 “수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전부 소모적인 일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의사들이 부족해 수술이 딜레이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년째 공석인 강릉의료원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인력 확보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음표를 남겼다.

강릉의료원 인사담당관은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아지게 되니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지만 “확정된 인원이 지방으로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과연 지역으로 올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호·박재혁

2024년 03월 21일 (목)

강원도민일보

종합 04면

도내 이통장 “농촌현실 외면…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 성명
도민 생명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전영록)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고성군청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국민과 강원도민은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떠난 자들의 빈 자리를 메우며 피로도가 증가하고 방치된 환자들은 언제 치료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감내하며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전영록)가 20일 고성군청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냈다.

에도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후 돌아오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학병원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은 국민들의 의료 정상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내이·통장들은 “의사가 부족

한 농촌지역 현실을 외면한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는 용서 못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도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오세현

2024년 03월 21일 (목)

강원도민일보

사회 05면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 10곳 확대…문제는 ‘돈’

가변형 LED 표지판 필수 설치
지자체, 공사비 예산 초과 우려
자치경찰위 “시설물 완화 협의”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찰이 현재 2곳에 적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10곳 더 추가하기로 했지만 당초 예산으로 웃도는 설치 공사비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야

간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할 곳은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스쿨존 2곳이다. 도와 경찰은 상반기 중 10곳(춘천 2곳·강릉 2곳·원주 3곳·동해 1곳·속초 2곳)에 대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속초를 찾아 공사 진행 계획 등을 살핀다.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한다. 이에 추가로 마련되는 10곳에 대해 도는 각 위치별

로 4000만원씩, 총 4억원의 예산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의 경우 각각 6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예산을 초과했다. 우선 양쪽에 설치해야 하는 가변형 LED 표지판은 한 개에 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닥면도색, 일반 안내 표지판 교체 등 모든 비용을 따지면 4000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변형 LED 표지판의 경우 경찰청에서 안전보완을 위한 시설을 강력 요구해 필수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꿀 수도 없다.

도내 한 시행 예정지의 경우도 표지판과 도색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해 교부받은 4000만원을 다 쓰고도 총량이 안 돼 지자체 예산을 사용했다.

만족도는 높다. 춘천에서 택시기사를 하고있는 김모씨는 “저녁 시간대 운행을 할 때 차나 사람이 없어도 30km로 달리는 것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속도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에서 첫 시행된 속도 상향 조정은 단속 건수 감소 효과를 봤다. 현재 상향 조정된 춘천 봉의

초와 강릉 남강초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운영됐는데, 속도를 상향 조정했더니 오히려 단속 건수와 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가 확보된 10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물 완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명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안전을 위해 LED 가변형 표지판 설치 요구를 해 비용이 비싸도 설치하고 있다”면서 “추가 확보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근거를 갖고 시설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1면

올 2월 강원 수출

‘3억430만 달러’

역대 최고액 경신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종합 08면

강원첨단산업 ‘새 지도’
기회발전특구 속도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달 착수
바이오·수소·반도체 분야 압축
상반기 신청, 연내 선정지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전국 지자체가 첨단산업을 내걸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등을 내세우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구용역 기한은 2개월이다. 강원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안을 작성, 상반기 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 여부는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9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도내 10개 시·군이 9개 특구안

계획을 제시했다. 각 특구 분야는 바이오(춘천시강원 AI정밀의료융합디지털바이오·강릉시천연물바이오·홍천군 첨단바이오 산업)와 수소(동해·삼척시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반도체(첨단반도체 융복합)로 압축됐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 사항은 △특구 이전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기업들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집적화 가능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꼽힌다. 도내에선 춘천시와 강릉시의 기업 유치가 활발하다. 춘천시는 2033년까지 9364억원을 투입하는 기업혁신과 크 사업 추진을 확정 지었다. 조성예정인 거두리 일반산업단지는 바이오 분야 77곳 등 총 88곳의 입주 희망 기업을 확보했다. 강릉시는 천연물 국가산업단지가 중심이다. 총 66개 기업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상대다. 원주시(첨단반도체 융복합)와 홍천군(첨단바이오 산업), 동해·삼척시(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등도 강원형 첨단산업을 통해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전부 모아, 올해 200만 평을 최대한 채워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2월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실적이 7개월 만에 3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액을 다시 갈아 치웠다. 3억 달러 실적은 역대 두 번째로, 효자 품목인 ‘전선’이 단일 품목으로 월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영향이 컸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한창희)가 발표한 ‘2024년 2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강원지역 수출액은 3억430만 달러(한화 1,340.0원 기준 4,077억원)로 집계됐다. 직전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7월(3억323만 달러)보다 107만 달러 상승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다시 썼다.

이처럼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것은 동해에 위치한 LS전선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대규모 수

효자품목 ‘전선’ 실적 호황 속

7개월 만에 3억 달러 재돌파

주를 이끌어 낸 영향이 컸다. 지난 달 도내 네덜란드 수출은 1억1,043만 달러로 1년 전(3,203만 달러) 대비 244.9% 급증했는데, 이 중 전선 수출만 1억652만 달러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LS전선이 인수한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전력케이블 사업의 확대와 자산 효율화 등으로 2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의료용전자기기(3,880만 달러) 및 자동차부품(1,545만 달러)은 각각 5.0%, 29.3% 감소했다.

강원지역 2월 수입액은 4억844만 달러(한화 5,473억여원)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42.2%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억413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창희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은 “강원지역 2월 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로의 전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지역 09면

춘천 WT본부 중투심사 발목 ‘숨고르기’

<세계태권도연맹>

행안부 심사위 재검토 판정
시설 운영계획 구체화 주문
시 “6월 재도전 목표 보완”

속보=춘천시가 추진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본지 3월20일자 4면)되면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개최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춘천시가 제출한 WT본부 건립사

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WT본부의 각 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춘천시는 모두 2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WT 본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치는 송암동 644-7번지 일원이고 본부는 사무공간과 전시장, 체험관, 박물관 등으로 구성된다. 춘천시가 120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70억원, 도비 30억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이다. WT본부 건립이 중투위에서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본부 건립 사업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춘천시는 이번 심의에서 사업이 통과되면 춘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설계 용역에 최소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하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현재까지 WT본부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WT본부 건립은 세계태권도연맹

을 유치한 춘천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WT 춘천 유치를 확정된 이후 본부 건립을 준비해왔다. 태권도와 관광, 교육, 문화를 어떻게 연계해 WT본부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춘천시는 이르면 6월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작부터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WT본부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지역 12면

‘봄이 성큼’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내주 개막

29일부터 17일간 근덕면 일원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화
공연·체험 이벤트·경기대회 등

도내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삼척의 대표 봄 축제인 ‘2024삼척맹방 유채꽃 축제’가 이달 29일부터 17일 동안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위원회(대표 김동숙)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내달 14일까지 ‘삼척 맹방 유채

꽃과 봄가득 희망가득’을 주제로 현장에서 화려하게 진행된다. 봄꽃 개화시기가 예년에 비해 빨라진 탓에 올해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1주일 가량 앞당겨졌다.

올해 축제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점 등 기본 행사와 유채꽃따라 경기대회 등 이벤트 행사, 매직풍선 만들기 체험 등 기타 행사 등 모두 1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별무대에서는 개그맨 조원석(죄민수)의 사회로, 문화속과 그라나다, 김유리, 신대양, 김선영, 김주는 등 유명 가수와

퓨전음악팀, 향토가수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삼척문화관광홍보관이 운영되면서 지역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반려동물문화(입양) 캠페인을 통해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인식개선 등 노력 이어진다.

축제의 압권은 무엇보다 근덕면 상맹방리 6.8ha 드넓은 벌판을 가득 메운 유채꽃 물결이다. 겨울 사풍을 이겨내고 지천으로 피어난 샛노란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꽃밭을 관통하는 근덕면 옛 국도 7호선에는 마치 꽃터널

처럼 봄의 전령사 벚꽃이 무더기로 피어나면서 질푸른 바다와 은모래 백사장, 샛노란 유채꽃, 새하얀 벚꽃이 한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봄을 선물한다.

시 관계자는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는 매년 20만~30만명의 상춘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동해안 대표 봄꽃 축제라는 점에서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 경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지역 13면

횡성한우축제 장소 섬강둔치 낙점

설문조사 결과 70.7% 지지
축제 일정 10월2일~6일 확정
“지역 상생·경제 활성화 중점”

지난 해문화체육로 일원에서 열렸던 횡성한우축제는 올해 20회째를 맞아 섬강 둔치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재성)은 최근 횡성군민 및 축제전문가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장소와 일정, 축제의 발전 방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축제 일정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으로 결정했다. 특히 조사 결과 17회까지 축제가 진행됐던 섬강 둔치가 70.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에 따라 제20회 횡성한우축제를 섬강 둔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횡성한우축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에 중점을 두고, 기존 축제의 장점과 강점을 살린 레트로 프로그램과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접목,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ESG 축제 구현과 다양한 퍼포먼스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연평균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횡성한우축제는 명실상부 횡성군의 대표 축제로서 다양한 시도와 콘텐츠로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횡성한우축제가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 전국 축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0회 횡성한우축제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획안을 선정해 20주년을 맞는 횡성한우축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지역 14면

영월 장릉 도깨비마을 나와라 ‘뚝딱’

군, 문화어울림공간 내달 완공
장릉 수호 도깨비 설화 바탕
소원존·광장·야외공연장 조성



오는 4월 말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능(陵)이 있는 영월읍 장릉 일대가 도깨비마을로 변신한다.

군은 도깨비들이 단종의 무덤인 장릉을 수호했다는 ‘능말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영흥12리 일대 4만6635㎡ 부지를 대상으로 도

조경공사를 앞두고 있는 장릉 도깨비마을의 도깨비광장 모습.

깨비마을 조성에 들어갔다.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6억7000만원을 들여 558㎡ 규모의 도깨비소광장에는 전통 정자와 휴게데크·앉은벽 등을 비롯해 느티나무

와 이팝나무·모감주나무 등을 심어 쉼터 기능을 갖추었다.

또 4690㎡ 규모의 도깨비광장에는 식당과 카페·화장실 등을 갖춘 복합어울림공간 ‘도깨비 객주’와 야외 소공연장·전통담장·37명의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4월 초부터는 주변 조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마을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됐던 길이 92m에 높이 3.5~4.5m, 폭 3.5m의 군둘재 장릉터널 내부에는 도깨비이야기 기준과 도깨비역사존·도깨비선물판매존을 비롯해 풍요와 건강·다산

을 기원하는 도깨비소원존 등을 설치하는 장릉도깨비마을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침이다.

이달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빠르면 4월 말쯤 완공해 노루조각공원과 보덕사·청령포·동서강정원·청령포원·탐방코스과 연계한 흥미로운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

최명서 군수는 “우리나라 도깨비는 매우 인간적이고 해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화된 도깨비마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사회 04면

‘뚝’... 산불 걱정 한시름 덜어

절기상 춘분에 내린 봄눈으로 동해안 지역이 가뭄과 산불 걱정을 덜게 됐다. 20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평창 용산이 26.2cm의 적설량을 비롯한 것을 비롯해 대관령 24.1cm, 강릉 왕산 24cm, 홍천 구룡령 22.6cm 등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지난 14일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19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동해안지역의 산불위

동해안 위험지수 하향 조정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돼
저수율 평년 대비 111% 수준

험지수도 19일 오전 ‘다소 높음’에서 오후에는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강원지역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111.8%의 수준까지 늘었다.

봄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경계태세에 들어갔던 강릉시 등 영동지역 지자체들도 한시름 덜었다. 다만 따뜻한 날씨로 쌓였던 눈

들이 금방 녹으며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봄눈이 마른 이후에는 더욱 건조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운 강릉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이번 눈으로 산불 위험 지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봄눈은 금방 녹고 건조해질 수 있다”며 “최근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있고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양간지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불 경계 태세를 항상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류호준·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사설/칼럼 19면

의대 증원, 의료 격차 해소 계기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후속 정책 뒤따라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의 대학별 증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1639명, 경기·인천에 361명을 배정하고, 서울을 제외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프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첫발을 디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의대 4곳 정원이 165명 늘어나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이 49명인 강원대가 132명으로 늘었고, 76명인 한림대와 49명인 가톨릭관동대, 93명인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모두 각각 1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내 의대 정원 규모는 모두 432명이 됩니다. 정원 확대는 의료 기반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원도는 매년 공공의료 기관 의사들의 타지역 유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유출에 이어 약사까지 속속 퇴사해, 공공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합니다. 부실한 응급 의료 체계는 도내 지역 병원의 공통

된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강원지역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도민들이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유출을 막지 못하면, 증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중증 질환을 담당할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려되는 점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입니다. 강원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는 일이 생긴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1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 혼인건수 최저치 정책 변화를

-8년 연속 하락, 외국인 결혼 비중 늘어 관심 필요

강원지역 혼인 건수가 8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작년 혼인 건수는 5494건으로 2016년 7468건 이후 8년째 내리막길입니다.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는 19만 4000여 건으로 2022년보다 1000여건 늘어난 가운데 17개 시도 중 감소한 곳은 7곳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곳은 강원을 포함해 대전, 제주 등이었습니다. 반면 늘어난 곳은 대구, 인천 등 10개 시도에 달합니다. 혼인 건수가 연속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 강원사회를 긍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번 통계는 2023년 한해 동안 신고된 혼인 및 이혼 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강원지역 혼인 건수는 2021년 5622건, 2022년 5572건에 이어 2023년 5494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비수도권 도 지역 가운데 23년 혼인 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전북, 충남, 충북으로 경제 및 생활 여건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강원의 평균 초혼 연령 역시 전국 평균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1세로 전년 대비 0.5세, 0.3세 올라갔습니다. 남자의 초혼 연령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다른 변화는 국제결혼가정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2021년 295건, 2022년 418건, 23년 5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차지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1년 5.2%였던 것이 2022년 7.5%였고 2023년은 10%가 갑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긴 했지만 강원은 가파른 편에 속합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물론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대개 결혼한 이주 여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결혼이주 여성, 전문인력, 노동자, 유학생, 해외 동포들이 유입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에 대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동등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자부심과 통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편견과 차별 없이 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강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사설/칼럼 19면

환자 고통 외면한 의사들 집단행동, 여기서 멈춰야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환자를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국에서 1만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증원 반대의 최대 논란인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반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7일 회견에서 “병원들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공공의료기관장끼리 회의하면 의대 증원에 이견이 없다”고까지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번 사태를 ‘몇 명이나 증원하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벗어났다.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기고 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까지 언급했다.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온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들은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직도 ‘2,000명 증원 풀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다. 의사는 전문직들만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높은 벽을 쌓아 놓고 ‘집단 사고’에 갇혀 있으면 곤란하다.

의료행위는 그들의 방식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 결정과 같은 대학정책에 일절 손대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으로 전국의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당해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의료 파행이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치료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헤아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겁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명시된 건강권을 지키라고 국가가 준 면허를 가지고 거꾸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의사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파업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환자를 불모로 한 의료 파업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의대 증원 반발 병원 떠난 지 한 달이 지나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착각서 빠져나와야

4월 발족 의료개혁특위에 능동적인 참여를

江原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

사설/칼럼 19면

늘어가는 MZ 조폭,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도내에서 MZ세대 조폭의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 가상화폐 종목 등을 추천하고 대리투자를 진행하는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조직폭력 추종 세력인 20대로 알려졌다. 올해 초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이 급한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 등을 미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팔아넘긴 ‘불법 대포통장’ 유통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원주에서 활동해 온 20~30대 조직폭력배였다. 춘천지검은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MZ 조폭 일당을 2023년 9월 기소했다. 또 강원경찰청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123명을 지난해 일망타진했다. 이들도 주로 20~30대였다.

MZ 조폭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납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신흥 범죄조직 MT5다. MT5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토사장(불법 토토 운영자의 속칭)’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핵심 조직원 중에는

2019~2021년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빙자한 ‘홀짝 게임식’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잔당도 포함돼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를 주도하고, 해외 선물 리딩방을 차려 거래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범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조직명 MT5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메타 트레이더(Meta Trader)’에서 따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조직폭력 범죄 집중 단속 결과로 검거된 1,189명 중 10~30대가 888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청년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7월 17일까지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 단속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 대포 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 행위, 집단 폭행·건설현장 폭력 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 행위다. 조직폭력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힘이 약한 애꿎은 서민이라는 점에서 경찰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도 물질만능주의에 지배받는 뒤틀린 가치관 및 조직폭력을 미화하는 일부 대중문화와 게임 등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